

스마트시티 구현 위한 생활밀착 시설 DB 구축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21종 대상
전주시, 생활SOC 정보 통합 관리키로

전주시가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 기반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키로 했다.

시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정책개발 및 미래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해온 생활SOC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소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약국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등 21종이다. 시는 대상시설의 자료를 수집한 뒤 통합DB화한 뒤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생활SOC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면 전주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자료 등 각종 공공SOC사업이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다양한 생활SOC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 되면 전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생활지리정보(map.jonju.go.kr)' 사이트에 연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 구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동골에 코스모스가 '활짝'



16일 전주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에 다가온 가을을 알리듯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색을 띠며 피어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 앞장 시민 혁신가 키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일까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전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혁신가를 양성키로 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북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주제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과정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대방과 공감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사고방식인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시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1회, 총 10회(80시간)로 진행되며, 역량강화를 위한 4주의 학습주기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6주의 혁신 프로젝트 주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전북지역 거주자 중 디자인씽킹교육과 퍼실리테이션에 관심 있거나, 대기환경 개선 및 사회혁신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 또는 구글링크(bit.ly/전주FT)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하면 된다. 진흥원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총 25명의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교육 수료증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협동조합 소이랩의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증이 수여된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리빙랩 기반을 구축하고,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조국 법무장관, 이달 중 '검사와의 대화' 첫 자리 마련

검사 지도 방법·근무평정 제도 재검토 지시
'법무·검찰 개혁' 국민 제안 받는 방안 시행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조직 문화 및 근무 평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월 중 검사 및 검찰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검사 복무 평정 규칙 개정 여부도 검토해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 직원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은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검찰의 조직 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조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제안을 받는 방안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진된 국민 제안 의견은 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조 장관 지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전주 무형문화재의 '삶과 숨씨' 엮보러

시, 24일부터 공개행사 개최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들의 삶과 숨씨를 엮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통의 혼과 무형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힘써온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전시 등으로 꾸며진 '2019 전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 국립무형유산원도 위치해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은 공연으로 재능을 뽐낼 예정이다. 공연에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는 △이옥희(심청가) △최선(호남삼풀이춤) △문정근(전라삼현승무) △조소녀(춘향가) △김무철(한량춤) △성준수(적벽가) △왕기석(수궁가) △이길주(호남산조춤) △오종수(시조창) △김영희(시조창) △이선수(가곡) △시성자(가야금산조) △박애숙(가야금병창) △김신우(수궁가) △전라삼현육각·전태준 △영산작법 △김광숙(교방무) △조용안(관소리장단) 등이다.

또한 어진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가능보유자 22명이 참여하는 작품전시회가 △1부(25일~30일) △2부(10월 2일~7일) △3부(10월 9일~14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작품 전시회에서는 △조정형(향토술담그기) △고수환(약기장) △이의식(웃칠장) △최동식(약기장) △김재준(소목장) △신우순(단청장) △김년임(전통음식) △이종덕(방짜유기장) △윤규상(우산장) △최중순(약기장) △최대규(전주나전장) △이신임(전주낙죽장) △곽중찬(모필장) △임재수(선자장) △유배근(한지발장) △방화선(선자장) △김종연(민속목조각장) △김해미자(색지공예) △김선애(지승장) △변경환(배첩장) △김한일(야장) △박계호(선자장) 등 무형문화재 가능보유자가 수십 년 고집과 정성으로 이어온 무형문화재 작품과 제작에 쓰는 도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선조들의 삶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으로, 오랜 시간동안 그 뜻을 잇기 위해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무형문화재를 선 보이는 뜻깊은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예능보유자 17명
가능보유자 22명 등
참여 전시·공연

지역 무형유산 보존
중요성 알릴 것 기대

이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시민들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종목을 공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되는 예능보유자들의 공연인 '나의전설 우리의 전설'과 경기전 어진박물관에서 펼쳐지는 가능보유자들의 전시행사인 '명장의 손'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예수병원 설대위 기념 암센터 외래진찰실 개소

예수병원 설대위 기념 암센터의 외래 진찰실 개소식이 16일에 새로 확장 이전한 외과 진찰실 로비에서 열렸다.

그동안 본관에서 외래진료를 해 왔던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는 이날 예수병원 설대위 기념 암센터 2층 위치한 외과 진찰실과 흉부외과 진찰실(육교 건너 바로 오른쪽), 비뇨기과 진찰실(육교 건너 바로 인편)로 이전해 각각 외래진료를 시작했다.

이번에 넓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갖추고 새롭게 단장해 확장 이전한 외과 진찰실에는 일반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유방갑상선외과, 혈관외과 등 6개 진찰실과 외과 초음파실, 맘모토포실, 혈관 검사실, 치료실, 다학제검사실(상당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흉부외과, 비뇨기과 진찰실과 치료실도 이날 함께 설대위 기념 암센터 진료실로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철승 병원장은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래 진찰실이 완벽한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예수병원 설대위 기념 암센터 2층 진찰실로 확장 이전해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외래진료를 할 수 있어 기쁘다. 이 외래공간이 설대위 전 병원장의 환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예수병원의 슬로건인 환자 제일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홍천 신용카드로

식료품 구입 70대 검거

홍천 신용카드로 식료품을 산 7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2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용카드로 홍천 뒤, 7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만취한 지인 금품 훔쳐

달아난 60대 덩미

술에 취한 지인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아파트 인근에서 만취해 쓰러진 지인 B모씨의 현금 28만원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음식점에서 현금 훔쳐

달아난 60대 붙잡혀

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월 16일 오전 5시 25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음식점에서 서랍에 보관중이던 현금 2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음식점 사장인 B모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책으로 살펴보는 '전주의 음식'

시, '전주맛' 창간호 발간
전라감영 외국인 접대상 새벽을 여는 맛 등 소개

유네스코 음식청의도시인 전주시가 전주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

전주시는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의 전주 음식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전주음식잡지인 '전주맛' 창간호를 발간, 전주시 관광안내소와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등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맛'은 흥미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쉬운 주제의 글과 재미있는 사진, 일러스트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간된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1884년 전라감영에서 외국인 손님을 접대할 상차림을 발굴해서 처음으로 재현한 내용 △오랜 세월 전주음식의 맛과 함께 해온 남부시장 △전주비빔밥의 필수재료인 노란 황포묵 △전주 노포의 맛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전주콩나물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시는 향후 잡지를 연 2회 이상 꾸준



히 발간하는 한편,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전주음식문화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 책자가 유네스코 음식청의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 및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음식 문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주한옥마을 향교일대에서 진행되는 전주비빔밥축제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무진장소방서, 하천 중간 바위에 매달린 남자아이 안전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 무주119 안전센터는 지난 15일 무주군 무주읍 적천로 로타리 부근 하천 중간 바위에 매달려 있는 남자 아이(4)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16시경 아들(만 4세) 혼자 퀵보드를 타

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모친이 112에 실종 신고를 한 사건으로 군청 상황실 CCTV로 하천 주변 실종가능 지역 관찰하던 중 하천에 빠지는 모습이 발견되어 119에 공동대응 요청한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